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7월 8~9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서 '2017 법형제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1박2일간 수련회를 마치고 스님과 거사들이 가지런히 앉아 기념촬영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

"거사들이 일어나야 불교가 산다"

[현장]
2017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전국 수련회

정근 · 심층토론 함께하며
500여 거사 마음자리 밝혀
환경보호 · 마음법 수행 등
참불자로서의 자세도 다져

"자성본래불, 자성본래불…."

낮고 진중한 거사들의 정근 소리가 눅눅한 밤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다. 500여 거사들은 촛불을 밝히고 '자성본래불' 정근을 하며 마음자리를 밝혀 수행과 불법홍포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한마음선원 전국 법형제회 수련회 현장에서다.

한마음선원 법형제회(회장 박종수)는 7월 8~9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서 '2017 한마음선원 전국 법형제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는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각 지원장 스님, 본원 법형제 법사 스님, 전국서 모인 법형제회 회원 등 500여 대중이 참가했다.

법형제회는 30여 년 전, 여성신도 중심 한국불교에서 대행선사가 거사들의 신행활동을 장려하면서 창립됐다. 한국불교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당시 거사들의 대대적인 결집은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 각지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물리적으론 떨어져 있었지만 '법으로 맺어진 형제'라는 이름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특강(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 △심층토론 △마음 밝히기 촛불재 △토론 결과 발표 △한마음 체육행사 △회향식 순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치마불교라고까지 불리던 여성신도 중심의 한국불교사에 유례없는 큰 획을 그은 법형제법회는 거사님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계에서, 지구의 주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대행 큰스님께서는 작은 나로부터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나의 한 생각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한마음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 자리에 놓으며 가라고 가르쳐주셨다"고 강조했다.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의 특강.



우수발표팀에 포교상 · 실천상 · 성실상 등이 수여됐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 수련회가 스승의 가르침을 내면으로 더욱 관하는 정진력을 기르고, 백척간두에서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으로 전체가 한마음의 공마당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자리가 되길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수 법형제회장은 인사말서 "자신의 근본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불기둥 에너지를 충만하게 느끼고, 이어갈 수 있는 정진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며 "나와 가정, 직장과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근본 주인공을 발현하고 생활 속에서 꽃 피울 것인지 서로 공유하며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특히 법형제회원들은 김수근 거사(대구지원)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맞다 틀리다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의 눈을 가져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심봉을 세우기를 발원한다"며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길 서원했다.


각자 촛불을 들고 자성본래불 정근을 하는 모습.


줄다리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회원들.

이어진 특강에서는 〈세계미래보고서 2055〉를 펴낸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가 최신 산업기술 동향 소개와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최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단가가 석탄 등보다 싸졌다. 태양광 패널 가격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이 같은 변화가 지속돼 태양광 패널 효율이 증가한다면 에너지를 개인이 생산해 사용하고, 잉여 에너지를 판매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법형제회원들은 심층토론서 환경보호를 위한 불자들의 자세, 마음법 수행에 필요한 실천 노력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20개 팀으로 나눠 100분 동안 토론한 회원들은 다음날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1팀 발표자는 "나로부터 자연보호를 실천하자는 행동강령이 도출됐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나와 남을 둘로 보게 된다"며 "지구와 환경을 나와 둘 아니게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개인 생활습관이 바뀐다면 주위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본원이나 지원에 이러한 구심점이 마련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음법 수행'에 대해 논의한 3팀 발표자는 "자식에 대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 등도 자기의식에서 나온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아파하고 자책하는 것보다 한 생각 돌려 긍정적으로 밝게 뒤집어서 놓고 가야 한다"면서 "당장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근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스스로의 습을 녹여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 발표자는 암을 극복한 개인 경험서 느낀 마음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감동을 전했다. 그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땐 절망에 빠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암도 내 일부이자 친구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후 계속 마음자리를 관(觀)하면서 병으로부터 벗어났다. 여러분도 모든 존재를 내 친구라는 생각으로 대해보라"고 조언했다.

우수 발표팀에게는 각각 포교상과 실천상, 성실상 등이 수여됐으며, 본원 · 지원 법형제회원 간 줄다리기도 진행됐다. 운동장에서 200여 거사들이 함께한 줄다리기는 장관을 연출했다.

양평=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